

[특집]

## 코로나19 이후 화곡본동 본당에서의 사목\*

정 월 기

[화곡본동성당 주임신부]

- I. 서론
- II. 본론
  1. 본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
  2. 사목의 우선 과제
  3. 미사와 안수
  4. 사제관 개량과 찾아 나서는 사목
  5. 신앙 수기와 신자 양성
  6. 성경으로 감도된 사목 활동
  7. 말씀여행과 말씀 목상
  8. 주님 중심 말씀 목상과 말씀여행
  9. 복음 나누기 7단계의 영적 의미
  10. 말씀여행 사용 배경
  11. 주님 중심 말씀 목상에 따른 말씀여행 도입
  12. 주님 중심 말씀 목상과 거룩한 독서
  13. 말씀여행과 거룩한 독서
  14. 주님 중심 말씀 목상과 말씀여행의 결실
- III. 결론

### I. 서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은 교회와 세상에 엄청난 영향과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코로나19는 사림과 섬김과 나눔의 본당 ‘공동체’의 삶과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sup>1)</sup> 코로나19 이후 교회는 공동체성을 회복하여야 하는 과제가

\* 이 글은 2024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1) “「한국 천주교회 코로나19 팬데믹 사목 백서」 무엇을 담았나, 2024년 「한국 천주교회 코로나19 팬데믹 사목 백서」 해설”, 『가톨릭평화신문』, vol.3379, 2024.02.04, 16쪽.

주어졌습니다. “본당은 그 지역에서 사는 교회의 현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 생활이 성장하는 장소며, 대화와 선포, 아낌없는 사랑 실천, 그리고 예배와 기쁨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또한 본당은 “공동체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실한 신앙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돕고 함께 만나서 사귄다와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사목적인 배려와 함께 회심을 유도해야 합니다.<sup>3)</sup>

공동체의 기초이며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희망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도록 돕는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신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임을 깨닫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공유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본당에서 어떠한 사목적 노력을 하였는지 화곡본당<sup>4)</sup> 본당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신자들의 신앙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도록 도왔던 노력을 나누고자 합니다.

## II. 본론

### 1. 본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

화곡본동 본당은 모든 신자들이 미사와 성사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당의 모든 구성원

2)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28항.

3) 참조: 교황청 성직자성,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봉사하는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10항.

4) 서울시 화곡본동에 위치한다. 교적 신자 수는 4,400명 정도, 2024년 상반기 주일 미사 연평균 참여 수 교적 대비 20.6% 정도, 주임신부와 부주임신부 원장수녀와 협력수녀, 네오카메꾸메나토 공동체가 있다.

들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본당 사목 목표<sup>5)</sup>를 공유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사랑의 친교 공동체가 되도록 협력하고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살아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서로 협력하는 사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사와 활동에 충실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본당 활성화 노력에 함께하였습니다. “교회의 선교와 복음화 활동 주체는 언제나 하느님 백성 전체다.”<sup>6)</sup> 이들이 본당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선교 사명과 책임을 다하도록 책임을 함께 나누는 본당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본당 모든 교우들이 친교에 참여하고 선교에 협력하면서 하느님 백성의 시노드 정신에 따른 공동체로 나아가게 됩니다.<sup>7)</sup> 본당은 사목자와 함께 구체적인 신자 공동체이며 선교와 복음화 활동의 주체입니다.

## 2. 사목의 우선 과제

코로나19 이후 주일 미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사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sup>8)</sup> 단호한 선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의 관습과 행동 양식, 시간과 일정, 언어와 모든 교회 구조가 자기 보전보다는 오늘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적절한 경로가 될 수”<sup>9)</sup> 있습니다.

사목회와 구역과 반 소공동체<sup>10)</sup> 지도자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본당을 활성화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고 함께 논의하

5) 2021~2024년 화곡본동성당 사목 목표: 1. 하느님 사랑의 친교 공동체, 2.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살아계신 가정 공동체, 3.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6) 교황청 성직자성,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봉사하는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27항. 이하 「사목적 회심」으로 약함.

7) 세계주교시노드 2021~2023 예비문서(Preparatory Document)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1, 1쪽.

8) 「복음의 기쁨」, 27항.

9) 「복음의 기쁨」, 27항.

10) 참조: 전원 외, 『한국 천주교회 소공동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 64쪽.

면서 여러 가지 본당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본당 봉사자들 면담과 전(全) 신자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 만남은 교우들의 사연과 현실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어려운 삶의 여정에서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쉬는 교우 방문을 하였고 2023년에는 전 신자 가정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가정방문이 끝난 구역은 구역 신자들을 모아서 성당에서 복음 말씀에 친밀해지도록 돕는 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피정에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하늘 나라에 초대받은 시민처럼 진복팔단을 사는 신자들이 되는 길을 안내하였습니다(마태 3,2; 마태 5,3; 루카 11,20 참조).

반 소공동체 단위 가정 미사를 2024년 초에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쉬는 교우나 신자들을 만나고 방문하고 그들을 성당이나 미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사목회와 구역반 소공동체가 본당이 친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고<sup>11)</sup> “선교 활동이 모든 교회 활동의 패러다임 임을”<sup>12)</sup> 깨닫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데 협력하였고 함께하였습니다. 냉담자 방문과 가정방문과 구역 소공동체 미사와 반 소공동체 미사는 소공동체 구역장과 반장들의 협력과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코로나19 때도 비대면과 대면의 방법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본당 단위의 월례 모임과 구역과 반 단위의 모임을 하면서 친교의 공동체를 유지해 왔습니다. 구역과 반 소공동체 지도자들은 모임을 주도하고 소공동체들과 연대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도우며 사귄다 나눴다 섬김의 친교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sup>13)</sup>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신자들을 좀 더 교회 모임에 초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와 교육과 사목적인 노력을 사목위원들과 구역반 봉사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지순례나 체육대회

11) 참조: 같은 책, 56-58쪽.

12) 「복음의 기쁨」, 15항.

13) 참조: 『한국 천주교회 소공동체』, 23쪽.

를 실시하여 교우들이 성당에 돌아올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5월이 되면 성모성월을 맞아 매일 묵주기도를 하면서 쉬는 교우들에게 기도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선교의 장애요소와 복음의 빛』<sup>14)</sup>이란 교재로 선교 교육과 가두 선교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교우들이 선교적 열성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당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엮어진 성삼위 친교의 공동체입니다. “신비인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배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함께 계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인 동시에 살아 있는 ‘기념비’입니다.”<sup>15)</sup> 본당 공동체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는 표지가 되고 기념비가 되도록 주님을 중심에 두는 사목을 하였습니다.

### 3. 미사와 안수

“성찬의 신비를 거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sup>16)</sup>이기에 본당 공동체를 증진하는 데에 핵심적인 순간이 된다. 그 안에서 교회는 그 이름 에클레시아(Ecclesia)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에클레시아란, 찬양하고 간청하며 전구하고 감사드리는 하느님 백성의 모임을 의미한다. 성찬례 거행 안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생한 현존을 환대하여 구원의 모든 신비의 선포를 받아들인다.”<sup>17)</sup> 여기서 찬양하고 간청하며 전구하고 감사드리는 하느님 백성의 모임과

14) 정월기, 『선교의 장애요소와 복음의 빛』, 천주교 서울대교구 2000년대 복음화 사무국, 2001.

15)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 199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2항.

1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1964.11.21, 11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94쪽, AAS 57(1965), 15쪽.

17) 참조: 「사목적 회심」, 22항.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미사에서 본당 공동체는 자신들의 삶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들은 믿음을 키워가고 희망을 새롭게 하며 주님 사랑에 깊이 참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란 인사로 미사를 시작합니다. 성당에 나오는 신자들이 미사나 성사에 기쁘게 참여하여 하느님의 은총에 참여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성당에 나오는 신자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고백성사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미사를 봉헌하는 교우들이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강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도록 준비하고 선포하며 교우들의 삶에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강론의 중심 내용은 하느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 은총, 성령과 함께 늘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sup>18)</sup> 전례분과와 현화회와 전례단과 성가대는 미사 전례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진행하도록 성실하게 준비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역반 소공동체 봉사자들과 소공동체 신자들은 지속적으로 모임을 하면서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안내하고 동반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경부터 미사 후에는 환자들을 위해 안수기도를 하고, 치유하시는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공동체가 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sup>19)</sup>

#### 4. 사제관 개방과 찾아 나서는 사목

본당 사목구는 지속적인 자기 쇄신과 적응력을 보여 주며 “자기 아들딸들의 집안에서 살아가는 교회”<sup>20)</sup>가 되어가야 합니다. 사목자는 본당이 “교회의 현존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 생활이 성장하는 장소이며, 대화와 선포, 아낌없는 사랑 실천, 그리고 예배와 기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도록 본당 모든 구성원이 참

18)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66-79쪽, 111~133항.

19) 참조: 최창무, 『가톨릭교회 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699항.

20) 「복음의 기쁨」, 28항.

여하도록 촉진하여야 합니다. 본당 사목구는 그 구성원들이 복음 선포자가 되도록 격려하고 교육합니다. 본당 사목구는 공동체들의 공동체이고, 길을 가다가 목마른 이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지성소이며, 지속적인 선교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본당 사목구는 친교와 참여의 장소가 되고 온전히 선교를 지향하여야 합니다.<sup>21)</sup>

사목자는 찾아 나서는 사목의 일환으로 사제관을 항상 개방하여 신자들이 언제든지 사제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더불어 개인 전화번호도 공개해 전화로 상담하거나 상담 약속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면담이나 안수나 고백성사나 병자성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찾아 나서는 사목은 사목위원들과 구역과 반 소공동체와 그 봉사자들의 협력과 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총구역장과 구역장들과 반 소공동체 봉사자들은 사제에게 신자들의 상황을 전해주어 사제가 적절하게 응답하도록 돕고 있고 그들은 말씀 안에서 모임을 하면서 말씀의 빛을 받아서 서로 친교와 사랑을 나누며 세상 복음화에 기여하는 사목협력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소공동체 봉사자들은 구역과 반 소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이나 사건을 사제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 5. 신앙 수기와 신자 양성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로마 10,15). 본당에서 신자들이 자신들의 신앙 삶과 그 은총을 구역과 반 소공동체에서 나누곤 합니다. 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기쁜 소식으로 들으면서 믿음이 성숙해 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 집니다”(로마 10,17). 복음 나누기를 하면서 받은 은총이나 삶의 열매를 나누는 많은 기회가 주어 집니다. 신자들도 자신이 발견하고 깨달은 복음적인 지혜와 은총을 소공동체나 단체 활동에서 나누며 위로를 주고받으며 성숙해 갑니다(필리 2,1~2 참조). 말씀을 묵상하

21) 참조: 「복음의 기쁨」, 28항.

고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양성되어 갑니다. 이렇게 나는 경험을 글로 작성하여 『주님 사랑』<sup>22)</sup>이란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 그 내용을 여러 교우들 앞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우들이 자신들의 삶을 복음적으로 성찰하여 기록하고 발표하는 가운데 하느님이 자신들의 어렵고 힘든 삶에 깊이 역사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안에 이런 아름다운 삶과 복음을 증언하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의 깊이”(로마 11,33)에 끊임없이 경탄합니다(마태 11,25 참조).

## 6. 성경으로 감도된 사목 활동

본당 사목은 “성경 사목”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sup>23)</sup> 본당 사목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야 합니다.<sup>24)</sup> 본당 공동체는 세상 복음화를 위한 사목적 회심을 할 때이며 그 회심은 “더욱더 그리스도와와의 만남”<sup>25)</sup>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친교에서 위로와 빛을 받지 못하고 힘 없이 살아가고 있다.”<sup>26)</sup> 본당 공동체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마르 6,37)<sup>27)</sup>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입니다. 본당은 이런 신자들과 세상의 요청에 응답하는 하느님 백성의 샘터가 되어야 합니다.<sup>28)</sup>

복음 선포는 “본질적인 것에, 곧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크고 가장 매력적이면서 가장 필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sup>29)</sup> 모든 성사와

22) 정월기, 『주님과 함께한 신앙이야기 주님 사랑』, 화곡본동성당, 2022.

23) 참조: 베네딕토 16세, 교황 권고 「주님의 말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73항.

24) 참조: 「주님의 말씀」, 73항.

25) 「사목적 회심」, 3항.

26) 「복음의 기쁨」, 49항.

27) 「복음의 기쁨」, 49항.

28) 참조: 「복음의 기쁨」, 28항.

29) 「복음의 기쁨」, 34항.

사목활동의 중심에 복음의 핵심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 근본 핵심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구원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아름다움”<sup>30)</sup>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sup>31)</sup>을 촉진하는 것이 본당 사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본당의 모든 사목을 “성경으로 감도 되게 하는 것은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분이시며 하느님 계시의 충만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 잘 알게 해 줄 것입니다.”<sup>32)</sup> 주님을 만나고 알고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신자들에게 그 중요성과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신자들이 성경 말씀에서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만나는 방법을 알게 하여 자신들이 만난 주님을 살고 전하면서 세상 복음화에 참여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하는 사도가 되려면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려면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습관화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선포해야 할 복음의 핵심과 본질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하느님이십니다.”<sup>33)</sup>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본당을 활성화하는 데 교회가 신자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와 슬픔, 내적 공허와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이 끊임없이 새로 생겨납니다.”<sup>34)</sup>

## 7. 말씀여행과 말씀 묵상

본당에서 복음 나누기를 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데 초점을 두고

30) 「복음의 기쁨」, 36항.

31) 「주님의 말씀」, 73항.

32) 「주님의 말씀」, 73항.

33) 「복음의 기쁨」, 11항.

34) 「복음의 기쁨」, 1항.

만든 교재가 『말씀여행』입니다. 『말씀여행』은 본당 소공동체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대교구 제기동 성당에 주임사제인 전원 신부가 2008년경 소공동체를 중심에 두는 본당 사목을 추진하면서 ‘말씀터’라는 이름으로 된 복음 나눔 자료를 만들어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은 신자들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신약성경 4복음서를 묵상할 때에는 예수님의 전 생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대방동 성당에서는 박기주 미카엘 주임신부가 2009년에 이 말씀터 자료를 도입하여 소공동체를 중심에 두는 본당 사목을 추진하였습니다. 말씀터라는 교재로 모임을 시작하면서 교재 이름을 ‘말씀터’에서 ‘말씀여행’으로 변경하고 말씀터 복음 나눔 자료를 일부 교우들의 요청에 따라서 수정 보완했습니다. 그 이후 말씀터라는 자료는 “말씀여행”이란 이름으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말씀여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랑하는 묵상과 나눔으로 신자들을 안내합니다. 서울대교구 광장동 성당에서 2016년경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신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말씀여행」 자료를 수정 보완해 신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sup>35)</sup> 2019년부터 교회인가를 받은 교재로 발간하게 됩니다. 『말씀여행』은 여러 소공동체와 본당과 교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주님 중심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정 보완한 내용은 성경 본문의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묵상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만나는 의도를 지니고 말씀에 머물도록 합니다. 참여자들은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주의 집중하고 그분의 행동을 바라보고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관찰하면서 주님이 드러내시는 반응과 태도와 모습과 마음에 머물면서 주님과의 친교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에 본문의 주된 메세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지성적인 작업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접근

35) 참조: 전원 외, 『소공동체를 위한 말씀 나눔 마태오 복음 말씀여행』, 한국통합사목센터, 2019, 4-5쪽.

하면서 성령의 감도로 씌여진 성경을 성령의 은총 안에서 깨달아 갑니다. 인간과 대화하려고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 현존 안에 머뭙니다.<sup>36)</sup> “성서를 읽을 때에는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따라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sup>37)</sup> 『말씀여행』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태 16,15)라는 주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묵상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합니다.

## 8. 주님 중심 말씀 묵상과 말씀여행

본당 공동체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모든 것의 우선이요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서울대교구에서 소공동체를 통한 복음화를 추진하면서 복음 묵상 나누기(복음 나누기 7단계, 함께하는 여정, 아모스 복음 나누기, 공동응답)를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sup>38)</sup> 이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이 신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워지고 보편화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표현하며 말씀에 따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복음을 묵상하고 나누기를 하는 실태를 들여다 보면 본래의 말씀 묵상의 의도와 정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소공동체를 추진하면서 소개된 복음 나누기의 원래 목적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복음 나누기를 하면서 성경 본문에 충실하여 그 내용과 관련된 묵상과 나눔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행해야 하는데, 대부분 본문과 관련이 별로 없는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를 나누거나 성경 본문의 메시지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눔을 하곤 합니다. 성경 말씀을 주님 만나는 텍스트로 이해하지 않고 성경 텍스트와

36) 참조: 같은 책, 5. 9쪽.

37) 「계시현장」, 25항.

38) 참조: 정월기, 「한국 천주교회 소공동체 사목 발전과정」,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 2005, 51쪽.

무관한 나눔을 하면서 주님과 친교를 맺는 복음적인 묵상 나눔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복음 나누기(『복음 나누기 7단계』, 『말씀여행』) 도구는 신자들에게 복음 말씀을 직접 읽고 텍스트에 나오는 하느님과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아가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며 자신들이 만난 주님을 세상에 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음 나누기에서 성경 구절은 주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성사적 표지”<sup>39)</sup>로 이해하며 성체성사에서 주님을 만나듯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요한 1,14 참조). 성경 말씀이 살아 있는 말씀의 표지가 되고, 현실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고 부활하신 주님과 사귀도록 이끌어 줍니다. 복음 나누기에서의 그리스도의 현존은 성체성사에서의 현존과 같습니다.<sup>40)</sup> “교회는 주님의 성체 및 성혈과 함께 성경을 항상 존중해 왔다.”<sup>41)</sup>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자신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묵상은 언제나 ‘하느님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지, 결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지 않는다.”<sup>42)</sup>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sup>43)</sup> 주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잘 숙지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삶의 현실을 말씀에 비추어 성찰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들 안에서 함께 해 주셨던 주님의 역사와 은총을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 나누기 할 때에는 우리는 읽은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이고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시는지를 알아내고 그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sup>44)</sup>

39) 참조: 오스왈드 히르머, 『사목을 위한 성서의 사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2000년대 복음화 사무국, 2001, 13쪽.

40) 같은 책, 13~14쪽.

41) 「계시현장」, 21항.

42) 엔조 비양키,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 이연학 옮김, 2018, 27쪽.

43) 참조: 「계시현장」, 2항.

44) 참조: AsIPA Team, 『복음 나누기 7단계』, 천주교 서울대교구 복음화 연구실, 2002, 9쪽.

소공동체 복음 나누기 중에 한 방법인 『복음 나누기 7단계』 교재에서 이 책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 체험으로 나가게 하며, 말씀이신 주님과 만나게 하며, 본문의 주님에 대하여 서로 나누면서 목상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심화하고 유대를 강화토록 합니다. 또한 공동체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친교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의미가 담긴 영성적인 분위기를 확대하도록 돕습니다.<sup>45)</sup>

## 9. 복음 나누기 7단계의 영적 의미

복음 나누기 7단계를 하는 영적 의미를 루카 10,38-42에 나오는 마르타와 마리아에 관한 복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나누기 7단계는 신자들이 주님 발치에 앉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가장 좋은 몫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루카 10,42 참조). 복음 나누기 7단계를 하면서 신자들이 얻는 결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 경청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의 집중하여 읽고 듣습니다. 눈으로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시편 42,2 참조). 입으로는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마시듯 합니다. 온 가슴으로는 예수님과 그분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다가가고, 그분께 마음을 활짝 엽니다. 마리아는 주님과 우정을 맺고 그분 발치에 있는 것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sup>46)</sup>

복음 나누기 7단계 진행 순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단계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친구처럼 초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신자들의 초대에 응답하셔서 함께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초대하였고 그 초대에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루카 24,29 참조). 부활하신 주님은 둘이나 셋이 모

45) 참조: 『사목을 위한 성서의 사용』, 8쪽.

46) 참조: 『복음 나누기 7단계』, 9쪽.

인 곳에는 늘 함께하시며 당신 현존을 드러내 주십니다(마태 18,20 참조). 복음 나누기 7단계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친구처럼 초대합니다.<sup>47)</sup>

복음 나누기 3단계에서, 성경 텍스트 중에 긴 문장이 아닌 단어 나 짧은 구절을 천천히, 기도하듯이 반복하여 읽되, 읽는 사이사이에 침묵을 하면서 기도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것” “필요한 것” “필요한 것” 하고 3번 반복하되 기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반복하면서 말씀으로 함께하신 주님 현존 앞에 머무릅니다. 복음 나누기 3단계에서 성경 본문을 읽고 짧은 문장을 세 번 반복하면서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의 “준서사적 표징”이 되어 그분 현존을 드러내고 독자는 기도 분위기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친교 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례에서 선포된 말씀 안에 현존하”<sup>48)</sup>시며 말씀은 성사적인 표징이 됩니다.

이처럼 복음 나누기 7단계는 독자들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7단계를 하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5단계 나눔에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보다는 자신들의 삶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친교를 맺는 것은 멀어지고 자기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있을 자리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웁니다. 복음 나누기에서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친교를 맺고 그분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서 안에서 사랑으로 당신 자녀들과 만나시며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신다.”<sup>49)</sup> 복음 나누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만나는 친교에 참여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자신들의 삶의 경험과 도전과 회심을 말씀과 그 메시지에 비추어 이야기하

47) 『사목을 위한 성서의 사용』, 19쪽.

48) 「주님의 말씀」, 109항.

49) 「계시 현장」, 21항.

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 10. 말씀여행 사용 배경

복음 나누기 7단계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주님 현존 안에 머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한 채 참여자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자기반성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복음 나누기 7단계의 본 정신과 목적을 회복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복음 나누기 7단계를 하며 25년간 익숙한 자기반성하던 습관을 바꾸어서 주님을 만나는 목상으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에서 주님의 뜻과 의와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7단계 대신에 『말씀여행』이란 복음 나누기 교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여행」 교재에서는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께 주의 집중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목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여 『말씀여행』이란 책을 완성하여 갔습니다.

## 11. 주님 중심 말씀 목상에 따른 말씀여행 도입

신자들에게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만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본당 사목입니다. 코로나19로 만남이 제한될 때에는 비대면 소통 방법을 사용하여 복음 나누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화곡본동 신자들은 줌(ZOOM) 앱<sup>50)</sup>을 활용하여 미사에 참여하였고, 구역장들과 함께 매주 복음 나누기 모임도 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전 신자들에게 주님 중심 말씀여행을 소개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본당의 원장수녀님과 사목위원들과 지도자들 몇 명과 함께 교육팀을 운영하였고 그들과 함께 전 신자들을 위한 교육과 실습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본당의 여러 소모임에서 말씀여행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

50) <https://zoom.us/ko/signin>(검색일: 2024.11.20).

수행하였습니다.

매주 모임을 하고 있는 여성 구역장들은 이제 주님 중심 말씀여행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중심 말씀여행에 사명감이 있는 여성 반장이나 여성 구역장은 반이나 구역에서 매주 혹은 매달 주님 중심 말씀여행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중심 말씀여행을 접해 보지 못한 신자들을 위해서 말씀여행을 매주 목요일 미사 후에 일반 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님 중심 말씀여행의 방법과 그 효과를 설명하고 성경 텍스트로 구체적으로 주님께 주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주님을 묵상하고 알고 사랑하는 길을 안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여행 그룹방”을 매주 금요일 실시하고 있는데 주임사제가 이 모임을 직접 운영하면서 말씀여행을 발전적으로 설명하고 실습하면서 말씀여행을 잘할 수 있는 여러 방법과 주님 중심 말씀 묵상의 지혜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 12. 주님 중심 말씀 묵상과 거룩한 독서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달으려면 반드시 하느님 말씀과 성전에 충실히 ‘머무르고’(요한 8.31~32 참조) 뿌리내려야 한다.”<sup>51)</sup> 본당 사목자에게 가장 유용한 복음 묵상은 “오랜 기간 실천되어 온 렉시오 디비나, 또는 성경의 ‘영적 독서’이다. 이는 성경 본문에 상당한 시간을 내어 읽고 또 읽고 교부들이 말한 것처럼 거의 ‘되새김질’하며, 그것의 모든 ‘양분’을 짜내어 그것이 묵상과 관상에 자양분이 되고 마치 수액과 같이 구체적 삶에 공급될 것이다.”<sup>52)</sup> 신자들이 성경에 접근하는 풍요로운 방법인 거룩한 독서는 “신앙인들에게는 하느님 말씀의 보고가 열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 있는 하느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sup>53)</sup> 합니다.

51)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 62항.

52) 베네딕토 16세, 「삼중 기도」, 2005.11.6. 「베네딕토 16세의 가르침」, 1/1(2005), 759~762쪽 재인용.

53) 「주님의 말씀」, 각주 296. 재인용, 최종 메시지, 제3장 9항.

거룩한 독서 1단계는 본문을 읽는 것(lectio)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단계입니다. 이때에 전제된 질문은 “이 성경 본문은 그 자체로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메시지에 충실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묵상(meditatio)입니다. 성경 텍스트가 읽는 사람과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주는지 밝히는 단계입니다. 이때에 질문은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나와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주는지 깨닫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도(oratio)입니다. 말씀 안에서 대화를 걸어오신 주님께 본문을 읽는 독자가 응답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질문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그분께 무엇을 말씀드리는가?”입니다. 우리 삶에 변화를 촉발하는 청원, 전구, 감사, 찬미의 기도로 응답을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관상(contemplatio)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내려놓고 그분의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전제되는 질문은 “주님은 우리에게서 정신과 마음과 삶의 어떤 회개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sup>54)</sup> 관상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1코린 2,16)이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거룩한 독서의 결실은 열매 맺는 행동(actio)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줍니다(마태 7,24 참조). 하느님의 어머니 이신 마리아는 거룩한 독서를 하는 신자들에게 묵상의 길로 안내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께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라고 응답하며 하느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셨습니다”(루카 2,19; 루카 2,51 참조).

### 13. 말씀여행과 거룩한 독서

주님 중심 말씀 묵상은 거룩한 독서의 묵상 방법과 그 영적 지혜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여행」은 주님 중심 말씀 묵상

54) 참조: 「주님의 말씀」, 87항.

을 하도록 안내하는 책입니다. 거룩한 독서 1단계에서 주의 집중해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의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와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말씀여행에서는 말씀 묵상할 때마다 성경의 한 장 전체를 읽도록 안내됩니다. 그 장 전체의 여러 소주제 중에서 자신에게 와닿는 소주제 하나를 정하여 집중하여 다시 읽습니다. 이때 거룩한 독서와 달리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거룩한 독서는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 나서지만 주님 중심 말씀 묵상과 말씀여행은 자신이 선택한 소주제 중에서 주님(예수님, 하느님, 성령)의 말씀이나 행동이나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찾아서 메모하게 됩니다. 자신이 발견한 주님에 관하여 발견한 것을 교재의 빈칸에 메모합니다. 이 단계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기” 단계입니다.<sup>55)</sup>

거룩한 독서 2단계는 묵상하는 단계입니다. 이 말씀이 독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는 단계입니다. 주님 중심 말씀 묵상에서도 거룩한 독서처럼 묵상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찾아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역동(力動 dynamic)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에 주님이 당신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주님과 그분의 메시지를 묵상합니다.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모습과 그분의 거룩함에 집중합니다. 또한 주님이 지니신 마음과 거룩함을 깨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머물습니다. 이때 독자들은 새롭게 깨달은 것을 메모하여 다음 단계에서 다른 참여자에게 발표할 준비를 합니다. 또한 본문의 주님이 자신들을 어디로 초대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 중심 말씀 묵상은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소공동체 신자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깨우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됩니다. 소공동체 신자들은 신앙 감각 안에서 자신이 발표한 내용들 안에 하느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음을 깨달아가면서 공동체 성장에 협력

55) 참조: 전원 외, 『루카 복음서 말씀여행』, 루카복음서, 2023, 9쪽.

합니다.<sup>56)</sup> 주님 중심 말씀 묵상은 거룩한 독서에서처럼 주의 집중해서 본문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만나는 여정을 통해서 묵상하는 모임은 주님이 살아 있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어 갑니다.

주님 중심 말씀 묵상은 묵상한 내용을 서로 나눌 때에 개인과 공동체를 풍요롭게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본문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 등을 발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활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묵상한 것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과 행동과 마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만남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 14. 주님 중심 말씀 묵상과 말씀여행의 결실

성경 말씀을 주님을 중심에 두고 읽고 묵상하며,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길을 배우고 훈련하면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함께하심을 깨우치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마음에 다가가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영으로 충만해져 갑니다. 주님을 친구처럼 대하면서 늘 함께하심의 은총을 표현합니다. 구역반 소공동체 지도자들이 협력하고 함께하는 믿음과 지혜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소모임에서 신자들은 주님 중심 말씀 묵상을 하면서 교회를 풍요롭게 하고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이 묵상법에 꾸준히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경 보는 법을 익숙하게 활용합니다. 이들은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가까이 계시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신자들 안에 주님이 자비로운 아버지 사랑 가득한 아버지로 자리 잡아갑니다.

주님 중심 말씀 묵상과 말씀여행은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

---

56) 참조: 「교회현장」, 12항.

다. 아직도 많은 신자들이 이 묵상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거나 멀리합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 말씀 묵상이나 말씀여행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부담스러워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읽고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당 공동체가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오신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길 희망하고 그런 충만한 공동체는 다른 많은 신자들에게 빛이 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 III. 결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본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목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본당이 공동체가 되도록 교육하고 공동체 모든 신자들이 미사나 행사나 성사나 교육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본당 활성화 노력의 주체가 되도록 함께하였습니다. 선교하는 본당이 되도록 선교 교육과 실습을 하였고 많은 신자들이 선교하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우들의 선교적 열정으로 예비신자들이 6개월마다 30여 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 이들이 영세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본당의 여러 가지 사목적인 배려 중에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만나는 데 사목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신자들이 하느님 나라의 축복 안에 살도록 격려하고 축복하며 성령 안에 기쁘게 살도록 사목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경으로 감도된 사목 활동의 도구와 방법은 『말씀여행』이란 책과 주님 중심 말씀 묵상 방법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교우들이 시간을 내서 말씀에 접근하여 묵상하는 “말씀여행”이란 대중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안내하면서 말씀 묵상을 대중화하는 데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거룩한 독서가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 좀 더 대중화되어 누구나 쉽게 말씀을 묵상하는 주님 중심 말씀 묵상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주님 중심 말씀 묵상 방법이나 말씀여행의 방

법은 비교적 쉬운 방법을 활용하여 말씀의 핵심 진리에 다가갈 수 있게 하고 주님의 말씀과 행동과 마음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주님이 친구처럼 옆에 와계심을 발견해 갑니다. 이제 주님 중심 말씀 묵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말씀여행』이 여러 본당과 교구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여행』이 앞으로도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좋은 길잡이가 되길 기대합니다. 본당과 소공동체가 말씀으로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기초로 하여 활성화되는 데 좋은 도구가 되리라 봅니다.

## [참고 문헌]

### 1. 교회문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 1993.
- 교황청 성직자성,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봉사하는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 \_\_\_\_\_,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 2018.
- 베네딕토 16세, 교황 권고 「주님의 말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 세계주교시노드 2021~2023 예비 문서(Preparatory Document)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 최창무, 『가톨릭교회 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 프란치스코교,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 2. 단행본

- AsIPA Team, 『복음 나누기 7단계』, 천주교 서울대교구 복음화 연구실, 2002.
- 엔조 비앙키,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 이연학 옮김, 2018.
- 오스왈드 히르머, 『사목을 위한 성서의 사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복음화 연구실, 2001.
- 전원 외, 『루카 복음서 말씀여행』, 루카복음서, 2023.
- \_\_\_\_\_, 『소공동체를 위한 말씀 나눔 마태오 복음 말씀여행』, 한국통합사목센터, 2019.
- \_\_\_\_\_, 『한국 천주교회 소공동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
- 정월기, 『선교의 장애요소와 복음의 빛』, 천주교 서울대교구 2000년대 복음화 사무국, 2001.
- \_\_\_\_\_, 『주님과 함께한 신앙이야기 주님 사랑』, 화곡본동성당, 2022.

### 3. 논문

- 정월기, 「한국 천주교회 소공동체 사목 발전과정」[“The Pastoral Process

involved in the Promotion of the Small Christian Community(SCC) in the Korean Catholic Church”],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 2005.

#### 4. 신문 기사

“「한국 천주교회 코로나19 팬데믹 사목 백서」 무엇을 담았나, 2024년 「한국 천주교회 코로나19 팬데믹 사목 백서」해설”, 『가톨릭평화신문』, vol.3379, 2024.02.04., 16쪽.

#### 5. 웹사이트

<https://zoom.us/ko/signin>(검색일: 2024.11.20).

## 국문초록

코로나19 이후에 본당 모든 신자들이 말씀으로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에 두며 활기찬 본당 공동체로 새로워지는 여정을 주임신부의 관점에서 소개합니다. 쉬고 있는 교우들을 찾아 나서는 사목과 함께 친교의 본당 공동체로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모든 화곡본동 본당 신자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본당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그 중심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만나는 영적 기초를 세웁니다. 본당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주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기쁜 소식의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신자들이 복음 말씀을 소그룹에서 정기적으로 묵상하며 주님 현존 안에 머무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사람들과 맺는 관계와 주님 모습의 풍요로움에 집중하여 머물도록 돕습니다. 이것을 “주님 중심 말씀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법대로 묵상하면 누구나 성경 말씀에 머물면서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만나는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오신 주님과 대화하고 친교를 맺는 길을 배워갑니다. 신자들은 주님을 공동체의 중심에 두고 주님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여정에 본당 주임신부와 봉사자들은 모든 신자들과 함께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이끌면서 본당이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주님 중심 말씀 묵상의 한 방법인 『말씀여행』을 소개하고 훈련했습니다. 신자들이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 친구처럼 다가가서 그분 사랑 안에 머물게 됩니다.

▶ 주제어: 말씀여행, 주님 중심 말씀 묵상, 성경으로 감도된 사목 활동, 말씀 묵상, 찾아 나서는 사목.